

관악구, MWC 2026에 스타트업 3개사 진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안산시가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안산 中企 애로상담센터 운영 정책자금 연계 등 도움 기대

경기도 안산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및 수출·통상 관련 애로 해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경영기술자금·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산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를 경기테크노파크 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총 361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27개 기업체가 약 2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경기테크노파크 3동 5층에 소재한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에서는 기업 현장 경험 이 풍부한 상주 전문위원 3명과 세무·회계·특허·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기업 진단부터 정부 지원사업 연계, 사업계획서 작성, 최종 신청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와 정책자금 연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백동기 기자 dkball@skyedaily.com

자치구 최초 '전용 부스' 운영... "유니콘 기업 도약 발판 마련"
전시·운송·홍보·해외 바이어 미팅 등 지원 판로 개척 견인

서울시 관악구가 관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돋기 위해 내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6'에 참가할 기업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MWC는 모바일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ICT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 3대 기술 박람회 중 하나다.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MWC 2026'에는 전 세계 200여 개국 29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혁신 기술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관악구는 서울경제진흥원(SBA)

과 협력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MWC 현장에 '관악구 기업 전용 부스'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참여 기업을 모집했으며 관악S밸리를 대표할 만한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3개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기업은 우수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관악구 소재 스타트업으로 △플래닛고 △나노브리지 △투피트이다.

관악구와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은 이들 기업이 현지에서 기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친다. △기업별 홍보 부스 및 장치(디스플레이)

지원 △전시 물품 운송비(편도) 지원 △서울통합관 디레토리북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순 전시 참가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외 바이어 및 투자사와의 사전·현장 미팅을 주선하고 현지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MWC 참가가 관악S밸리의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등용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벤처·창업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더 넓은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관악구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 'MWC 2026'에 참가한 디오비스튜디오 부스에서 해외 관계자에게 '라이브스타일러'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관악구

양천구, 항공사진으로 무단증축·불법건축물 잡는다

항공사진 판독 위반건축물 5218건 6월 말까지 현장 점검 실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사전 차단... 합법화 상담센터도 운영



양천구 공무원들이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변동 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을 현장 조사하고 있다.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가 2025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와 변동 사항이 확인된 건축물 5218건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9일 양천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된 변동 건축물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중점 점검 대상은 △베란다·옥상·테라스 무단 증축 △천마·철제구조물 등을 활용한 영업공간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행위는 위반 건축물에 해당된다.

현장 조사는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건축물 대장과 현황도를 토대로 실제 현장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증축 건축물의 경우 준공 이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신고허가 이력이 없거나 공부와 상이한 경우 위반 건축물로 판단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2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주인(사후 허가신고 등)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이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 완화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센터'를 운영해 무료 상담과 합법화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양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반 사항 진단부터 합법화 가능 여부, 합법화 절차 안내까지 일대일로 제공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현장 조사는 무분별한 위반건축물로 인한 화재나 붕괴 사고를 예방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심리 상담부터 회복 관리까지... 서대문구 마음건강 지원 강화

'홍제마을활력소서' 내달부터 본격 운영 전문 상담사가 스트레스·우울 등 상담

서울시 서대문구가 주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서'에 '마음건강쉼터'를 조성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9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편안하게 들러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열린 휴식 공간으로 운영시간은 평일인 월~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달까지는 주 2회 월

요일과 수요일에 시범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전문 객원 상담사가 일상의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 같은 심리 고민을 상담하고 우울감과 불안 등의 정서 상태를 점검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및 전문 기관에 연계한다.

상담은 주 1회, 회당 50분, 최대 8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 회복 과정도 꾸준히 관리해 준다. 19세 이상 서대문구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면 소득 기준에 없이 누구나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 희망자는 서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선착순 전화 예약 후 이곳 센터로 방문해 사전 신청 상담을 하고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는다.

이성현 구청장은 "주민분들이 마음을 돌보며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마음건강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서대문구

마포구,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1·12일 10개 단체 참여해 판매 한우·과일 등 시중가보다 저렴



마포구가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지난해 박강수 구청장이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마포구

주·팔·한우·도리자더덕 등 신선한 농축산물을 비롯해 젓갈류·김치·조청·김부각·치즈·요거트·장류·꿀·황태·김류 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한다. 이들 품목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설 명절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자원봉사캠프 등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바자회도 함께 열린다. 모듬전·떡볶이·순대·어묵·식혜 등 명절 먹거리를 판매하며 수익금 일부는 소외계층에 기부한다.

판매 환경도 강화했다. 생산자 이력제 운영과 판매 가격·원산지 표시 의무화로 신뢰도를 높였고 카드 결제와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하도록 해 구민 편의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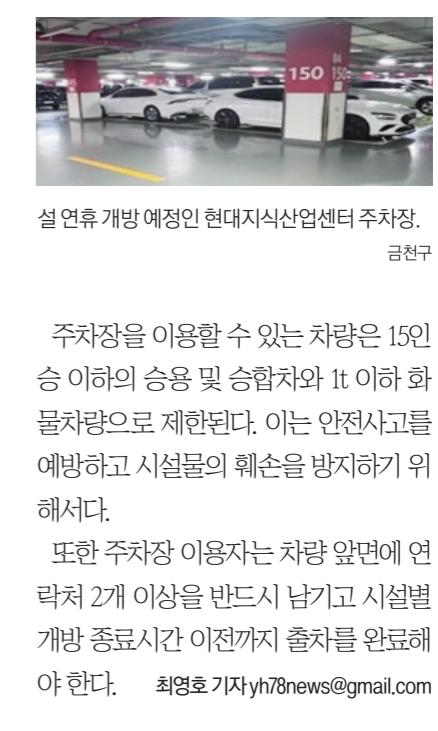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금천구, 설 연휴 주차장 1638면 무료 개방

서울시 금천구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지역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연휴 동안 학교 주차장과 민간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주차장 개방 시설은 △학교 6곳 186면 △공영주차장 7곳 360면 △공공기관 10곳 397면 △교회 및 집합건물 등 민간시설 11곳 695면으로 총 34곳 1638면이다. 연휴 시작 전인 13일부터 19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마다 개방 시간과 장소가 다를 수 있어 이용하기 전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 또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 각 시설에 게시된 현수막을 통해 개방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설 연휴 개방 예정인 현대자식산업센터 주차장. 금천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15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차와 1t 이하 화물차량으로 제한된다.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 앞면에 연락처 2개 이상을 반드시 남기고 시설별 개방 종료시간 이전까지 출차를 원료해야 한다.

최영호 기자 yh78news@gmail.com



군포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군포' 국비·시비 총 9900만 원 투입

경기도 군포시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3년 연속 국비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포시는 2024년 최초 선정된 이후 매년 공모에 선정되며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대해 왔다.

시는 이번 공모로 확보한 국비 4950만 원에 시비를 더해 총 9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년간 협력해 온 관내 14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의 연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총 27개로 장애 유형과 생애 주기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요 5대 분야는 △직업능력 △성인 진로개발 △인문교양 △문화예술 △기반 구축 등으로 단순 교육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하은호 시장은 "3년 연속 선정은 시와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얻은 결과"라며 "그동안 쌓아온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포=백동기 기자 dkball@skyedaily.com